

군포

GUNPO MONTHLY
MAGAZINE VOL. 410



CONTENTS

2022 OCTOBER VOL. 410

발행 | 2022년 10월
발행인 | 군포시장
발행처 | 군포시청 총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 | www.gunpo.go.kr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www.facebook.com/gunpocty
 blog.naver.com/o2gunpo
 www.instagram.com/gunpocty
 www.youtube.com/user/gunpocty
 https://pf.kakao.com/_e0Sx0

정기구독 신청(무료)
031-390-0062
duee2@koreakr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속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실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

Well 군포



06 가치 그린 도시 군포

군포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마음 군포시민 걷기대회' 성료
2022 청년의 날 기념
군포청년 안전지대 프로젝트 열려
군포시니어클럽
'반갑다! 행복한 효(孝) 소풍' 진행

10 it-多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힙환경'이 돈다

Section 2

Innovation 군포



12 군포 Fall 페스티벌

이 가을 더 풍요롭고 더 다채롭게
군포올래(A來) 행복축제
2022년 일자리 박람회
군포환경한마당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plus+'

16 좋은 사람

봉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삶
한형교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연합대장

Section.3

Talent 군포



18 라이브 군포

별 헤는 밤 그 항기로움에 대해
군포 누리천문대

20 트렌드 산책

인생 2막을 위한
지금은 자격증 시대

22 군포 헬스케어

울긋불긋 단풍 따라
떠나는 산행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Section.4

High 군포



24 문화 이음

문화 프로그램

26 군포가 좋다

기관 소식 및 취업정보

Section.5

군포 With 뉴스



28 군포 with NEWS

30 군포시의회 NEWS

32 독자세상

34 숨은그림찾기

35 캠페인

가을이 오는 소리

10월에는 가을 밤하늘을 빛내는 별자리들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보거나
가을의 전령사인 풀벌레들이 들려주는 합주에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많이 사랑한다고…



가치 그린 도시 군포

GUNPO
Online

1 군포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군포시는 지난 9월 14일 보훈회관 민방위 교육장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999년 9월 7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돋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관 학합의장 마련을 위해 준비된 기념행사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헌한 사회복지 유공자 14명이 표창을 수상하였고 여러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내면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위로하기 위한 내마음 보고서 해설 강의가 펼쳐졌다.



TOGETHER

2 ‘한마음 군포시민 걷기대회’ 성료



군포시는 9월 17일 '한마음 군포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월 걷기대회와 등반대회를 번갈아 열어왔다. 이 행사는 군포시민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 경기, 영남, 제주, 충청, 호남향우회가 주관하고 시와 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대회는 시청 야외공연장을 출발해 문화예술회관-산본성당(뒷길)-8단지사거리-중앙공원을 거쳐 시청으로 되돌아온다. 4.6km 구간에 1시간 30분 소요됐다.



가치 그린 도시 군포

3 2022 청년의 날 기념 군포청년 안전지대 프로젝트 열려



군포시는 9월 17일(토)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군포청년 안전지대 프로젝트 (SAFE ZONE) 행사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개최했다. 청년정책 공유를 통해 청년의 안전지대(SAFE ZONE)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재즈밴드버스킹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청년사진관(퍼스널컬러 찾기 등), 청년직방(내가 꿈꾸는 주거 공간 만들기), 청년해소(걱정인형만들기), 청년고민(고민카페일 BAR), VR모의 면접체험, 청년마인드톡톡!!(스트레스 측정), 청년정책꿀팁(청년사업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러 계층의 청년이 어우러지는 만남과 소통, 새롭게 알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시간으로 꾸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이 행사 기획단계부터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냈을 뿐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부스) 운영에도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행사 당일 청년들과의 교감과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지난달 심사를 마친 2022년 청년아이디어페스타 '청년생각' 공모전 수상작과 2021년 수상작 등 총 10개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현장시민 투표를 실시하여 청년의 생각과 고민을 시민이 공유함으로써 청년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예비 청년, 현재 및 과거의 청년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었다.



GUNPO

TOGETHER CITY



4 군포시니어클럽 **‘반갑다! 행복한 효(孝) 소풍’ 진행**

군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9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으로 효(孝)소풍을 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문화활동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와 관계자 약 1150명이 참여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고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이 화창한 가을날 한국민속촌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식사와 보물찾기 등의 일정으로 참여자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소풍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웠는데 효소풍을 통해 오랜만에 야외 나들이를 하게 되어 즐거웠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군포시니어클럽과 군포시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현재 군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총 187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VALUE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힙환경’이 뜬다

환경을 위한 소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관련 키워드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차원의 실천이 아닌 기업의 생존전략, 나아가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이슈라는 시선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힙환경’이 주목받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writer. 편집실

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 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용기(勇氣, courage)를 내서 용기(容器, container) 내(內, in)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이다. 첫 시작은 2020년 4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배우 겸 환경운동가 류준열과 함께 진행한 계기로 확산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챌린지는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천 주머니나 다회용기 등에 음식과 식재료를 담아 온 각 양각색의 사례를 게시한 뒤, '#용기내 챌린지' 또는 '#용기내 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붙이면 된다.

용기내 챌린지 실천 초보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소개해 본다. 먼저 채소 및 과일류 구매 시 천 주머니나 에코백에 야채류 등을 담는데, 집에 있는 비닐·양파망·거름망·보자기 등을 챙겨 가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거름망 등은 식재료 표면에 묻은 흙이 잘 털리고 통풍이 잘 되어, 운송은 물론이고 식재료 보관에도 좋기 때문이다.

용기내 챌린지





다음은 수분이 있는 식품의 경우 포장 시 밀폐 용기를 사용해보자. 밀폐 용기는 유리 용기·스테인리스 용기·플라스틱 다회용기 등으로 소재가 다양하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용기는 깨질 염려가 없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다. 스테인리스나 유리 소재로 된 용기는 용기 내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음식을 담을 수 있다. 한편, 국물이 있거나 뜨거운 식품은 깊은 냄비나 프라이팬이 포장하기 적합하다. 냄비나 프라이팬은 많은 용량의 음식도 무리 없이 담을 수 있으며, 보·냉 모두 유리하다.

쓰레기 없는 세상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그대로 일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제로(zero)'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성장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회용 용기 사용의 자제와 텀블러 사용하기 등 비교적 쉽고 간단하니 이번 가을부터 실천해 보기를 권해 본다. 한편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해 보겠다 마음은 먹었으나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보길 바란다. 이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단계에서 시작해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음료를 마실 때 빨대는 사용하지 않기 ▲ 테이크아웃과 음식 배달을 할 때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지 않기 ▲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 들고 다니기 ▲ 쇼핑할 때 장바구니를 챙기기 ▲ 포장되지 않는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기 ▲ 유리 제품을 사용하기 ▲ 남은 음식은 유리 용기에 보관하기 ▲ 랩 대신 약스랩 사용하기 ▲ 쿠킹호일 대신 종이호일을 사용하기 등이 있다.

당신이 입는 옷이 지구를 지킨다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보통 친환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자연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나 그것들을 활용한 이런저런 제품들로 막연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이 경우도 그렇다. 과거 친환경 이유 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이미지가 천연염료로 염색한 개량 한복 또는 구제 의류 정도가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친환경 의류의 활용 소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 소재를 몇몇 살펴보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페트 병과 커피 찌꺼기부터, 폐그물, 버섯 균사체, 현수막까지 소재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소재들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들은 일반 의류부터 모자와 신발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 소재의 다양화에 힘입어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디자인의 폭이 넓어지면서,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위 패션 피플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힙(Hip)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요즘 '힙환경'이라고 부르며 '필(必) 환경'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한 해 평균 패션·섬유산업이 배출하는 의류 폐기물이 21억 t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올바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

01 이 가을 더 풍요롭고 더 다채롭게
군포올래(All來) 행복축제

writer. 편집실





◆

제34회 군포시민의 날을 기념해
군포시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화합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



제34회 군포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 화합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Let's Go! 군포, 군포 올래(All來) 행복축제'라는 이름으로 10월 7일~9일 산본로데오거리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가을 축제는 코로나로 3년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군포시는 군포독서대전, 평생학습축제 등 8개 축제들을 통합해 낭비를 줄이고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먼저 축제 첫날(7일) 저녁에는 시민체육광장에서 'Let's Go! 군포, 군포 올래(All來) 행복축제' 전야제인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오후 6시 30분부터 기념식과 민선8기 비전선포식, 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미스트롯2 양지은, 김나희와 육중완 밴드, 노지훈, 이평찬, 신나가 출연하여 대망의 축제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8일부터는 군포독서대전, 평생학습·생활문화축제, 도자·공예축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군포독서대전이 8일 하루 산본로데오거리에서 40개 부스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며 '응답하라 1980'이란 주제로 군포시장과 함께하는 북토크도 열린다. 또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2022평생학습축제와 생활문화축제는 대형그림판에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코믹마술서커스, 벌서커스, 블랙사이렌 외 40개 팀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수리사에서도 8일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초대가수 정태춘, 박은옥, 흥주혜와 재즈밴드, 성악중창 등 공연이 가을 수리산을 배경으로 시민들을 낯선 세상으로 데려갈 예정이다.

행사 대미는 9일 열리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장식한다. 산본로데오거리에서는 엄지용 재즈밴드, 이한진 Funk Unit, 정상민 재즈밴드팀 등의 재즈공연이 펼쳐지고 군포역에서는 군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은하씨의 밤차공연과 함께 위일정, 김홍국씨 등 30여개 팀이 참여하여 축제 마지막까지 신명나는 무대를 펼칠 계획이다.

문화 예술과 ☎ 031-390-0063
도서관정책과 ☎ 031-390-8861

02 2022년 일자리 박람회



군포시가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2022년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구인업체에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 행사는 관내 20여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직종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력서용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메이킹 등 부대행사와 VR 면접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일자리센터 ☎ 031-390-0613/0614

**도시 ■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2022년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

2022.10.14.금 14시~17시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군포시 산본로 267 / 산본역 1,4번 출구)

| 프로그램 안내 |

채용관 구인구직 현장면접	면접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유관기관 일자리사업소개 취업상담	부대행사 이력서사진촬영 퍼스널컬러메이킹 지문작성검사
-------------------------	--------------------------------	-----------------------------	--

주최·주관 | 군포시(군포시일자리센터) ☎ 031-390-0613, 0614

03

군포환경한마당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plus+’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가 군포환경한마당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plus+’ 행사를 진행한다. 군포시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본 행사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깨닫고 탄소중립의 생활 속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0월 8일(토)로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념식 및 축사를 시작으로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plus+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 생태교육 ‘오늘은 나도 생태탐험가’,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plus+ 나눔 장터 운영’, ‘우리동네 쓰담달리기 챌린지’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

문의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031-390-0505~6



2022년 군포환경한마당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plus+

2022. 10. 8.(토) 14:00 ~ 17:00
복합생활스포츠타운

기념식 / 체험행사 / 생태교육 / 업사이클링 놀이터

QR 코드
세부내용 확인

소중한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을 즐겨요!

주 제 |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분리배출, 리필스테이션,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
내 용 | OX퀴즈, 생활 속 실천약속, 시민 설문조사 등
체 험 | 에코화분, 태양광자동차, 양말목 컵받침, 가죽지갑 만들기, 친환경 주방세제 등
▶ 버리지는 라면봉지 2개와 커피 캡리어를 들고 오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어요.

모두가 즐거운 업사이클링 놀이터로 고고!

- 버리지는 재활용품이 놀잇감으로 재탄생하는 마법이 펼쳐져요.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업사이클링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문 의 군포시 환경과 390-0249,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390-0505~6

군포시 환경과 |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봉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삶
**한향교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연합대장**

가을로 물든 군포의 풍경이 유난히 포근했던 9월 말, 군포 산본중심상가 일대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향교(59)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연합대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군포에서 나고 자란 그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숨은 의인(義人)이다.

writer · photographer. 노유찬



30여 년 지역사회 위해 봉사

한향교 대장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연합대원으로 12년 또 대장으로 6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활동해 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 왔다. 이런 그가 의용소방대와 인연을 맺은 건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군포시새마을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군포시새마을협의회에서의 활동은 그가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해준 고향과 같은 곳으로 그

의 나이 28세 때다. 사회적 통념상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시점이었다.

“제가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를 해올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바쁘신 일상에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 등 사회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셨고 어머니를 따라나서 가끔 도왔던 게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던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에게 전해졌다.

위기 현장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

한향교 대장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환경정화운동, 순찰봉사, 농촌 지역 부주의 화재예방 등 군포산본중심상가 관리소장이라는 바쁜 본업이 있음에도 내 고장 군포와 시민을 위해 헌신적이다.

이런 그에게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화재 및 봉사현장이 몇 있다. 먼저 2019년 인명사고까지 냈던 페인트 공장 화재 사건과 다음 해 있었던 군포 아파트 화재현장이다.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여전히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다.

최근의 예로는 지난 5월 5일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열렸던 어린이날 행사 때 있었던 기억으로, 행사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 앞선 사례와 반대로 참 잘했다 생각되는 기억이다. 올해 여름엔 폭우로 피해를 본 수혜현장을 찾아 의용소방대원 30여 명과 함께 구슬땀 흘렸고, 수리산 산불 발생 때도 소방대원들을 도와 소임을 다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으로 첫 소절이 시작되는 추억의 로봇 애니메이션 짱가의 주제곡이 불현듯 떠오른다.

봉사활동하며 삶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져

수년 전부터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가가호호 방문해 화재 감지기를 보급·설치하는 일까지 도맡고 있다. 어느덧 설치한 가정만 수천 곳으로 ‘소방대장’ 이전에 ‘봉사대장’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2002년부터 관내 소년 소녀 가장도 돋고 있다. 당시 그는 불우 아동을 위해 학용품과 식료품 등을 해마다 지원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삶의 지혜와 자존감을 일깨워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소신 때문이다. 그때의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져 어느덧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 그들을 위해 해마다 겨울이면 직접 재배한 배주로 김장을 담가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가 온정을 나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나누는데 익숙하다. 바쁜 일상을 쪼개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고민 없이 달려간다. 이런 그는 “나누면 나눌수록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의 가치관이 확장된다는 것이고, 다음은 봉사를 시작한 뒤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하면서 “곧 다가올 겨울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6

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화재 감지기 설치를 마친 뒤 대문을 나서려던 중
저를 불러세운 어르신이 거친 손으로
주머니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건네셨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순간 어른신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올컥하더군요.

9

별 해는 밤 그 향기로움에 대해 군포 누리천문대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10월, 결실의 기쁨이 넘치고 운치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군포의 핫 스폿 (hot spot) 중 한 곳인 군포 누리천문대를 찾았다. 군포 누리천문대는 대야도서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간세상'과 '별세상'을 연결한다는 꽤나 낭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writer: 편집실 **photographer:** 누리천문대



이 가을밤, 별들이 전하는 감미로운 이야기 따라 떠나는 흥미로운 우주여행

군포 누리천문대는 대야도서관 4~5층에 위치한 작은 천문대로, 그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체험과 밤하늘의 별들을 얼마든 관찰할 수 있는 알찬 천문대다. 누리천문대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수 우리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과 별의 세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누리천문대는 크게 천체관측실, 플라네타리움, 천문우주체험관, 4D 입체영상관으로 각각 공간이 나뉘어 마련돼 있다. 천문대 하면 가장 먼저 커다랗고 둥근 원형의 돔을 떠올리는데, 누리천문대에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다. 옥상정원에 위치한 '천체관측실'로 5m 원형 돔에 천체 자동추적 시스템을 갖춘 대형 굴절망원경이 인상적이다. 특히 주망원경을 비롯한, 태양망원경, 보조망원경 등의 관측 망원경을 통해 태양, 달, 행성, 은하,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으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한번 가보길 추천한다.

비쁜 일상에서 가끔 고개 들어 밤하늘을 바라봐도 미세먼지로 인해 별자리를 관찰하기 어려운 요즘이다. 이럴 때는 천체투영실에 마련된 '플라네타리움'이 제격이다. 4m 둘 안에 실제 밤하늘을 축소해 그대로 옮겨놓은 이곳은 언제든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천장 스크린에 계절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천문우주체험관'이다. 이 공간에는 천체영상전송장치, 천체학습용 PC, 태양계 저울, 달 위상변화 체험기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천문우주와 관련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아이들의 호기심 해결에 적합하다.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인 '4D 입체 영상관'이 다음으로 가볼 공간이다. 각종 과학 영상을 생동감 있고, 스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입체안경을 쓰고 현장감 넘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영상에 따라 바람과 수증기, 그리고 의자에 진동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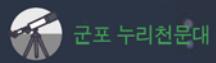
epilogue

나들이하기에 좋은 이 계절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는 누리천문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작지만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체험시설들은 신비로운 우주로 여행자를 안내하며, 인간 세상과 별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추억을 기록하기 위한 여행 목록에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ㅋㅋ



운영시간

- 천문우주체험관 : 09:00~18:00
- 4D입체영상관 : 10:00, 11:00, 14:00, 16:00
- 야간관측(예약제)
 - 동절기 - 19:00~21:00
 - 하절기 - 20:00~22:00
- 태양관측 - 금, 토 14:00~15:30
- 휴무 : 매주 일요일, 월요일
- 입장료 : 무료



군포 누리천문대

- <https://www.gunpolib.go.kr/nuri/#/>
- 군포시 대야2로 139(대야미동) 4층, 5층
- 031-501-7100



인생 2막을 위한
지금은 자격증 시대

바야흐로 자기계발 시대다. 연봉, 승진 등 그 이유도 다양한데, 이번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예비 퇴직자들을 위한 자기개발 정보를 담아보았다.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퇴직 시기는 평균 51.7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8년 이상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 말로 미래의 나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대다.

writer. 노유찬



01 생각보다 이른 은퇴 시기와 늘어난 기대수명

평균 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난 요즘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평균 정년퇴직이 50대 초반인 만큼 은퇴 후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

지난해 중순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확인해보면 고령층의 경우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결코 무리는 아니다. 한편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펴낸 보고서 '2020 한국의 직업정보'를 살펴보면, 중장년(50~69세)이 가장 일하기 적합한 직종으로 농림·어업직이 가장 일하기 적합한 직종으로 나타났다.

02 사회 관심에서 멀어지는 중장년층

최근 한 금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사유의 41.3%가 권고사직, 정리 해고, 사업부진 등 비자발적 퇴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취업문제에 밀려 사회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0세 이상 중장년층 비중은 2020년 45.8%에서 2030년 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반면 청년층 비중은 19.9%에서 14.7%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3 새 출발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인기 높은 자격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구인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 기능사로 지난 수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지게차운전기능사는 특별히 요구하는 응시조건이 없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제2의 직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추세다.

시험 합격률은 2020년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의 경우 필기 기준 68%, 실기 50.3%였다. 이어 건축기사와 한식조리기능사도 순위변동 없이 각각 2위와 3위를 고수하고 있다. 토목기사와 건축산업기사는 5위와 11위에, 전기기사·전기산업 기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산업기사는 4위·6위·7위·14위에 오르는 등 건설분야와 전기분야는 많은 종목이 꾸준히 상위에 포함돼 있다.



04 중장년 직업 적합성 1위는 플로리스트

중장년 직업 적합성 1위는 플로리스트가 차지했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꽃의 재배나 유통,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플로리스트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시험과 화훼장식기사 자격시험 등이 있다. 수입은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일반 꽃집에 취업할 경우 월평균 150만~200만 원 선이며, 웨딩이나 파티를 프로젝트로 맡을 경우 1건에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숲 해설사’와 ‘문화 관광 해설사’ 등도 중장년 직업 적합성이 높은 직업 중 하나다. 업무 성격상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서 연평균 소득은 1,078만 원 수준이다. ‘중년 고시’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업도 인기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가장 많이 택하는 직업 중 하나로 정년이 없고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TIP

미래 나의 새출발을 위한 자격증 준비

- 직장인 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자격증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기적인 안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많은 자격증이 존재하고 취득 방법도 다양한 지금, 미래 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유행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먼저 고민하기!
- 지속 가능한 직업과 자격증 조사하기!
- 예전 나의 직업과 연관성을 고려한 자격증 준비하기!





누구나 즐길 수는 있으나 모두가 알고 있지 못하는 올바른 등산 정보



01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은 필수

등산 15분 전 반드시 준비운동으로 몸을 이완시켜야 한다. 목부터 허리, 무릎, 발목 등 스트레칭을 통해 인대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이는 운동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산행할 경우 접질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전반적인 체력을 길러놓는 게 가장 좋으며,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등산 전에는 발목 주변과 다리 전체의 근력부터 유연성과 민첩성을 증가시켜 두는 게 좋다.

02 알맞은 장비 착용 잊지 마세요.

등산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 준비하는 장비를 꼽는다면 단연 등산화일 것이다. 등산화를 고를 때에는 자신의 발 사이즈에 딱 맞아야 하며, 미끄럼 방지가 되는 것을 고르길 추천한다. 또 무릎 보호대와 지팡이, 그리고 젤 형태의 깔창을 사용하면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하중을 분산시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나서길 바란다. 한편 등산 시에는 가급적 양손에 물건을 들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긋불긋 단풍 따라 떠나는 산행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의 산이 붉게 물들고 있다. 이에 산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으나 초보자는 물론 잘못된 등산 정보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산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writer. 편집실

03 적절한 체력 안배로 건강한 산행을

등산은 개인차에 따라 페이스를 유지하지만 보통 50분을 걷고 10분 휴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되도록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체력에 70~80% 정도를 이용해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지에서는 일반적인 걸음걸이로 걷되 오르막길에서는 보폭을 평지보다 조금 좁혀주는 게 좋다.

04 등산만큼은 피해야 할 만성질환

등산이 여유모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을 가진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른 아침에 공복 상태로 등산할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저혈당으로 실신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자의 경우도 무리한 등산을 삼가는 게 좋은데,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에서 응급상황과 마주했을 때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인 사람은 등산을 피하는 게 좋다.

05 안전한 하산으로 유종의 미를

정상에 오른 기쁨을 충분히 누린 후 하산을 하는데, 오를 때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 하산할 수 있도록 하고, 걸음걸이는 뒤틀림을 들고 보행 하듯 부드럽게 지면을 디뎌 하체 하중이 대퇴부 고관절에 직접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뒤쪽 다리의 무릎을 평상시 보다 조금 더 깊숙이 구부려주면 앞쪽 다리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혹시 잘못된 등산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1.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산을 시작한다.
2. 과로로 피곤하지만 참고 산에 오른다.
3. 스트레칭과 거리가 멀다.
4. 먼 거리의 명산을 찾아서 무박 또는 야간 산행을 즐기는 편이다.
5. 일행과 밸런스를 맞춰 함께 쉬려고 노력한다.
6. 숨이 가빠도 참고 이겨내며 산에 오른다.
7. 산에 오를 때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편이다.
8. 자주 쥐가 난다.
9.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지친다.
10.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는 편이다.
11. 등산 중 음주를 즐긴다.
12. 하산 중에 무릎이 아프다.
13. 등산 후 기운이 완전히 빠진다.
14. 등산을 끝내고 나서 다음 날 소변 색이 매우 노랗다.
15. 화장실 문제 때문에 물 섭취를 꺼린다.

총 15개의 문항 중 7개 이상이라면 잘못된 등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위해 습관을 바꿔주세요.



문화 프로그램

미술의 도시: 뉴욕 1945-2000 / The city of Art: NEW YORK 1945-2000

- 일 시 2022. 9. 16.(금) ~ 10. 16.(일)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2 전시실
- 입장료 일반 5,000원
- 내용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의 현대 미술을 뉴욕 미술 중심으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전시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현대 미술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현대 미술 거장인 앤디 워홀, 프랭크 스텔라, 제임스 로젠 쿠스트, 짐 디인, 로버트 마더웰, 로버트 롱고, 로이 리히滕슈타인, 존 미첼, 8인의 작품 37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 city), 팝아트(Pop city),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 city)의 주요 경향별 총 3부로 나누어 구성된다. 본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뉴욕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드러난 현대미술을 선보이고,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뉴욕의 흐름을 통해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 문의 031-390-3500~1(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이은결 <MAGIC & ILLUSION>

- 일 시 2022. 10. 16.(토) 14:00, 18:00 / 10. 16.(일) 14: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료 R석(1층) 66,000원, S석(2층) 44,000원
- 내용 상상을 뛰어넘는 스펙터클과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그리고 콘서트의 열기를 병불杂하는 생동감으로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은 이은결 <MAGIC & ILLUSION>. 국내 최대스케일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쇼인 이은결 <MAGIC & ILLUSION>은 이전에 보지 못한 매직콘서트의 절정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 문의 031-390-3500~1(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브런치클래스 <도나우강 뮤직 크루즈>

V. 집시들의 열정

- 일 시 2022. 10. 20.(목) 11: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15,000원
- 내용 군포 프라임필의 연주와 전문가의 해설이 어우러진 군포문화재단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은 브런치클래스 <도나우강 뮤직 크루즈>의 2022년 다섯 번째 공연. 형가리를 주제로 작곡된 곡과 도나우강이 간직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리스트, 엘가, 포퍼, 브람스의 대표곡을 만나본다.
- 문의 031-390-3500~1(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시데레우스>

- 일 시 2022. 10. 21.(금) 20:00 / 10. 22.(토) 14: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30,000원
- 내용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선정 작품으로 2년 여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탄생된 창작 뮤지컬 <시데레우스>. 2017년 6월 아르코-한예종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 독학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2017년 충무아트센터 블랙앤플루 시즌4에서 리딩 공연을 올리고 그 후 약 2년여의 심혈을 기울인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로운 웰메이드 창작뮤지컬'이다. 갈릴레오와 캐플러의 지동설 연구를 통해 별과 우주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풀어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할 전할 것이다.
- 문의 031-390-3500~1(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2022 네버랜드 in 군포 V<쓰레기꽃>

- 일 시 2022. 10. 26.(수) 11: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10,000원
- 내용 문화가 있는 날 다섯 번째 공연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게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전하는 어린이 환경연극이다.
- 문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2022 군포생활문화축제

- 일 시 2022. 10. 8.(토) ~ 10. 9.(일) 11:00 개막
- 장 소 군포시생활문화센터
- 대 상 군포 시민 누구나
- 내 용 2022 군포생활문화축제는 군포시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공유·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축제는 노래, 밴드와 커스 등의 공연, 공예 및 사진 등의 전시, 체험·마켓 부스, 마스터클래스, 먹거리존(푸드트럭) 등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제안한 가족·어린이 대상의 재미난 놀이와 추억 및 다원장르의 놀이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 문 의 031-390-3562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생활문화센터)



2022 제9회 평생학습축제

- 일 시 2022. 10. 8.(토) ~ 10. 9.(일)
- 장 소 산본로데오거리
- 내 용 체험마당, 기획마당, 전시마당 등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
- 문 의 031-390-3066 (군포문화재단 수리산상상마을)



리사이클아트랩 군포 개관

- 운영기간 2022. 10월부터
- 운영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4층 리사이클아트랩
- 내 용 리사이클아트랩 군포는 재활용되지 않은 작은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장비를 활용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군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 의 031-390-3053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



군포시평생학습원 <초등 경제시작하기>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2022. 9. 29.(목) ~ 개강시까지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운영기간 및 내용
 - 2022. 10. 12.(수) ~ 10. 26.(수) : 4차 산업혁명 시대 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
 - 2022. 11. 1.(화) ~ 11. 15.(화) : 소비와 투자 / 모험 투자왕!
- 수 강 료 무료
- 강 사 민인엽, 최미영
- 운영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 문 의 031-390-3054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



상상극장 정기공연 219회

- 공연명 블랙라이트 <종이아빠>
- 공연기간 2022. 11. 17.(목) ~ 19.(토) 11:00(목), 11:00/19:30(금), 11:00/14:00(토), 총 5회
- 공연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예매기간 2022. 10. 17.(월) ~ 11. 18.(금)
- 예매방법 인터파크/현장예매
- 대상 3세 이상 관람
- 문의 031-390-3050(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



기관소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기 간 연중

발굴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

신고접수처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 | |
|----------------------|-------------------------|
| • 복지정책과 031-390-0610 | • 군포1동 복지과 031-390-3629 |
| • 군포2동 031-390-8561 | • 산본1동 031-390-8636 |
| • 산본2동 031-390-8649 | • 금정동 031-390-8657 |
| • 재궁동 031-390-8648 | • 오금동 031-390-8769 |
| • 수리동 031-390-8537 | • 궁내동 031-390-8788 |
| • 광정동 031-390-8797 | • 대야동 031-390-4026 |
| • 송부동 031-390-3697 | |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 12. 31. 이전 출생자)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97개소
(군포시보건소 및 산본보건지소 접종불가)

지원기간

대상	지원기간
만 75세 이상 (1947. 12. 31. 이전 출생자)	2022. 10. 12.(수)~12. 31.(토)
만 70~74세 (1948. 1. 1~1952. 12. 31. 출생자)	2022. 10. 17.(토)~12. 31.(토)
만 65~69세 (1953. 1. 1~1957. 12. 31 출생자)	2022. 10. 20.(목)~12. 31.(토)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 무료

준비물 신분증

문의 군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390-8954~55



2022–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지원대상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 1. 1~2022. 8. 31. 출생)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57개소
(군포시보건소 및 산본보건지소 접종불가)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자 2022. 9. 21.(수)~2023. 4. 30.(일)
- 1회 접종대상자 2022. 10. 5.(수)~2023. 4. 30.(일)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 무료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되니, 접종 전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2~2023절기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준비물 주민등록번호, 예방접종수첩 지참(보호자 동반 필수)

문의 군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390-8954~55



군포시미디어센터 4분기 미디어교육 수강생모집

신청기간 ※ 월별 신청기간은 상이함

- 10월 : 2022. 9. 24(토) 10:00~10. 6(목) 13:00
- 11월 : 2022. 10. 13(목) 10:00~10. 27(목) 13:00

신청방법 군포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gpmmedia.or.kr)
일반회원 가입 후 신청

교육장소 군포시미디어센터
(군포시 산본천로 111, 군포시보훈회관 3층)

교육방식 대면교육

문의 군포시미디어센터 미디어정보팀
☎ 031-399-8976~7

※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미디어센터(www.gpmmedia.or.kr) 홈페이지 참조



'2022년 제1회 군포시 알뜰나눔장터' 개최

일시 2022년 10월 15일(토) 11:00~15:00

장소 산본로데오거리(시청 건너편 광장)

내용 중고물품 판매장터, 폐건전지 장바구니 교환행사

문의 위생지원과 지원순환팀 ☎ 031-390-0334





JOB-多

군포시가 추천하는 추천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주)티피엠에스 전자부품 제조업 ⊙ 군포시 고산로 166(당정동)	자재사무원 1명	● 주5일 09:00~18:00 ₩ 연봉 24,000,000원
에이치티씨(주) 전자부품 제조업 ⊙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46, 엠테크노센터	조립 생산관리 2명	● 주5일 09:00~18:00 ₩ 연봉 28,000,000~32,000,000원
(주)한성GT 기계제조업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39(부곡동)	기계장비 기술영업 2명	● 주5일 08:30~17:30 ₩ 연봉 28,000,000~36,000,000원
모스전자 전자부품 제조업 ⊙ 군포시 당정로 68-1	품질관리 신입, 경력 1명	● 주5일 08:30~18:00 ₩ 연봉 26,000,000~30,000,000원
(주)에이치디사인 간판 광고물 제조업 ⊙ 군포시 공단로 193	발주부서 사무원 1명	● 주5일 09:00~18:30 ₩ 월급 1,910,000~2,300,000원
삼양데코 가죽제품 제조업 ⊙ 군포시 공단로 104번길(당정동)	포장/출고 1명	● 주5일 08:00~17:00(오후 임업있음) ₩ 월급 2,500,000~2,600,000원
제일수요양원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군포시 번영로 604, 이화빌딩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명	● 주5일 09:00~18:00 ₩ 월급 2,000,000~2,100,000원
(주)미르기술 반도체 제조업 ⊙ 군포시 고산로 166(당정동), sk벤티움	총무직 경력자 1명	● 주5일 09:00~18:00 ₩ 연봉 30,000,000~40,000,000원
(주)동양에이케이코리아 금속제품 도매업 ⊙ 군포시 고단로 140번길(당정동)	제조 단순증사원 및 거래처납품원 2명	● 주5일 08:30~17:30 ₩ 시급 9,160원~9,300원
(주)세이프원 관리 서비스업 ⊙ 군포시 월에스로 143 금정역 AK PLAZA	AK플라자 미화 5명	● 주5일 07:00~15:00(오전조) 14:00~22:00(오후조) ₩ 월급 1,770,000원

※ 2022년 9월 15일 기준 자료로 구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정보는 일자리센터(031-390-02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군포산업진흥원 '2022년 대한민국 금속산업대전'에 군포시 기업 공동전시관 운영



군포산업진흥원은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일산 콘테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금속산업대전'에 군포시 기업 공동전시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및 주요 아시아 국가 11개국, 205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금

속가공 기업들의 산업 트렌드, 기업 간 네트워킹, 기업 판로지원 등 제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 참가를 위해 총 6개사를 평가를 통해 서광테크놀러지, 에스비캐스트, 제일정공, 코마틱코리아, 탑금형, 프리메디텍 기업이 선정되어 군포시 공동전시관에 참여하였다.

참여기업들은 전시회 기간 동안 군포시 공동전시관에 기업 제품 소개와 참여기업 간 업무협력 방안 논의, 주요 기술들을 만날 수 있는 '금속 기술 세미나'와 국내외 수요업체 바이어들을 초청한 '1:1 바이어 매치메이킹'에 참여하며 기업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9월 23일 군포서 개최



군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신문고를 9월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운영했다. 달리는 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모두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조사관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민원인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되었다.



올해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2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연 300억 원 규모로 이번 4차에는 100억 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4차 신청은 10월 12일까지 접수하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 군포시 기업포털 (<http://www.gunpo.go.kr/biz/index.do>)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일상생활 속 10만보 걷기' 챌린지 시작



군포시는 2022년 9월 수리산 걷기 사업을 재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15일 동안 10만보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은 줄어들고 비만율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

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적으며 부상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신체활동이다.

9월 19일 시작되는 '일상생활 속 10만보 걷기' 챌린지는 모바일 앱(워크온)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챌린지 성공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원권)이 주어진다. 단, 하루 최대 8천보까지만 인정되고 선착순 1,000명에게만 선물이 제공되니, 13일 동안 꾸준히 걸어야 한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우리 삶에 걷기 챌린지가 새로운 활력 소가 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포시의회, 제262회 정례회 개최

조례 및 기타안건, 2021년 결산, 2022년 3차 추경 심의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0월 4일 폐회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서 심의 등 중요 안건을 다루는 제262회 정례회를 9월 15일 개회했다.

10월 4일 폐회될 이번 회기 내에는 예산안 2건(2022년도 군포시 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영계획안), 결산안 2건(2021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 및 기타안건 6건이 심의된다.

또 9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평가한 후 대안 제시 및 시정까지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회기 중 시의원들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철철 4호선 대야미역 개량 사업 추진을 성사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사무 처리 시 근거 조례와 시행규칙을 철저히 지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 시의회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대응 및 복구 지원 내용 점검, 금정역 환승센터 및 공업지역 정비 추진 상황 등 주요 시책을 확인하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시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이번 회기 심의 내용과 결과는 시의회 누리집 (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호 의장은 “제9대 군포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이자 행감이어서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회기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9대 군포시의회 청렴지수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교육받아

군포시의회의 청렴지수가 한층 강화됐다.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8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에서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렴 의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며 “기관 연수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수시로 청렴·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최초 시행

9대 의회가 첫 도입, “지속·강화”
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판 신설·운영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향상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제보 접수’가 군포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시도됐다.

제9대 군포시의회는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포시 행정과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제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신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행감특위 위원장이었던 김귀근 의원은 “시정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의회의 변화 노력이 행감 시민제보 접수로 실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기간 : 2022. 8. 29.(월) ~ 9. 12.(월) [15일간]

※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22. 9. 16.(금) ~ 9. 23.(금)

○ 접수내용

-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 시정 운영의 주요 사항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 참여방법 : 누리집, 방문 및 우편, FAX

- 누리집 : 군포시의회 누리집 (gunpocouncil.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방문 및 우편 :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당(군포시 창백리길 6)
- 문의전화 및 FAX : 031-390-8715 / 031-392-4004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됩니다.

[제보하기](#)

“Smile” 시민과 동행하는 군포시의회
시민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제9대 군포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회,
먼저 다가가는 군포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GUNPO CITY COUNCIL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 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사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duee2@korea.kr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 지급
: 3만원 상당. 모비일 문화상품권 등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로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 제출기한은 매월 18일까지입니다.



알려드립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기고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전 '노치'

장진업(금정동)

장마도 지나갔는데 무슨 비가 이리도 많이 내릴까? 온종일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나 어릴 적 비 내리면 토란잎 위에 동글동글 빗물로 장난도 치고 냇가에 가서 다슬기 주워서 삶아 먹고 소똥을 모아두었던 거름에선 비가 그치면 모락모락 김이 나고는 했었지.

나 어릴 적엔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 지금은 시골에도 없는 것이 없지만 그 당시 깡촌이던 내 고향에선 비 오는 날이면 감자떡 해서 먹고 참나무 장작 아궁이 위에 솔뚜껑 뒤집어 놓고 밀가루에 물만 부어 휘휘 저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전을 부쳐 먹었던 최고의 주전부리였다. 고향에선 그 부침개를 '노치'라 불렀다.

어릴 적 단오날 친구들과 부모님들 몰래 냇가 자갈밭에서 만들어 먹었던 추억도 생각난다.

밀농사도 직접 해서 먹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비에 고향 생각이 나면서 옛 시절 추억에 잠시 젖어본다.

오래전 휴가 때 고향에서 놀며 저녁에 냇가에서 손전등 비춰 가며 다슬기도 많이 주웠고 그 어두운 밤에 끓여 먹었던 라면 맛은 정말 최고였다. 사방이 어두 캄~캄 했지만 다리 밑에서 맛있게 먹고 들어 와서 꿀잠을 잤다.

새벽녘에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다. 그 빗소리는 잊을 수 없는 정겨운 소리, 내겐 이제 추억의 소리가 되었다. 나의 어릴 적 흔적이 담긴 고향, 이렇게 비 내릴 때에 추억하는 것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도 고향도 그리워진다. 가난해도 부모님 그늘에서 지낼 때가 참 좋았었다.



달뜨는 호수가

박경호(재궁동)

석양이 다소곳하게 머물던
반월 호수 고요한 밤에
노을 비낀 달은 수면 아래 잠겨있고
허공에 금적이려는 시심으로
둘레길 추억에 젖어 있는데

아까부터 말 걸어오던 바람이
외로움에 떠밀려 심술부리니
다정스럽게 눈길 보내던 달은
서툰 몸짓으로 물결에 깨져버리고
이지러진 시상만 어른거린다



오미크론과 이별하며… 신옥이(오금동)

오미크론
너와의 만남은
목이 붓고 고통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칼칼하고 텁텁하고 면도칼로
할퀴고 간 너의 흔적들로 기억된다

오미크론
너와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도 않는 너를 느끼며
나는 자가격리, 무력감에 사투를 벌인다
뜨거운 눈물 같은 온수와 소독제로
지독하게 너를 지워 버리려 애써본다

오미크론
너와의 헤어짐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 뒤에
롱코비드 후유증이란 이름으로
피로, 근육통, 폐렴으로 상처를 남겼다
언제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너를 잊고 살 수 있을지…
우리 이제 더 아프지 않게 이별하자



숨은그림 & 퀴즈



숨은그림

하트, 장화, 개뼈다귀, 사과, 물고기, 부채, 박쥐, 옷걸이

수수께끼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2022년 군포시 ○○○ ○○○'를 개최한다. (14페이지 참조)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사진을 촬영해 10월 18일까지

이메일 duee2@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개별 공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정답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 정답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발표)

김○경(1703) 조○제(6357) 소○현(3809) 김○훈(3267) 구○희(5281)

지난 호 정답

수수께끼 : 60

숨은그림 : 빗, 새, 배드민턴공, 나비, 연필, 물고기,

볼링핀, 버섯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예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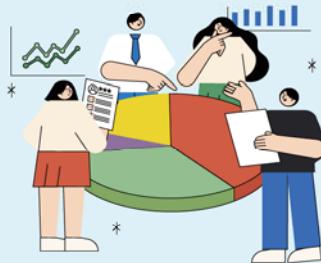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정답제출 유의사항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표시 필수(휴대전화 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 취소)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다음, 한메일은 대용량으로 첨부되므로 이용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추첨에서 제외



구독자 이벤트! 설문조사하면 선물이 팡팡!



안녕하세요. 군포시는 〈군포소식〉을 월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유익한 〈군포소식〉을 만들고자 설문을 실시하니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설문자료는 본 조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 주관기관 – 군포시청 홍보정보담당관(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독자설문

- ① 귀하의 성별은? 여성 남성
 - ② 귀하의 연령은? ()세
 - ③ 귀하의 주거지역은? 군포시 군포시 외
 - ④ 군포소식 구독 방법은?
 ① 우편 정기구독 ② 관공서 ③ 아파트 동(현관) ④ 전철역 ⑤ 은행 등 기타
 - ⑤ 군포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⑥ 군포소식 중 가장 만족스런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① Well 군포(가치 그린 도시 군포, it-多)
 ② Innovation 군포(기업 브이로그, 좋은 사람, 새로고침)
 ③ Talent 군포(라이브 군포, 트렌드 산책, 군포 헬스케어)
 ④ High 군포(문화 이음, 군포가 좋다)
 ⑤ 군포 With 뉴스(군포 with NEWS, 군포시의회 NEWS, 독자세상, 숨은그림찾기, 캠페인)
 - ⑦ 군포소식은 현재 36면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군포소식 제작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수는 무엇입니까?
 ① 32면 ② 36면 ③ 40면 ④ 44면 ⑤ 48면
 - ⑧ 2023년도 군포소식 제작시 바라는 개선사항이나 희망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의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성명, 휴대전화 번호
1년 보유 후 파기
- ※ 휴대전화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첨을 위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시는 경우 귀하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 이름 : 휴대전화 :
- | 우편으로 〈군포소식〉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를 남겨주세요.(무료)
- 주소 :

응모기간

2022. 10.1.~10.20.

응모방법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응모 가능

- ① 하단의 QR코드를 찍어
접속하여 설문조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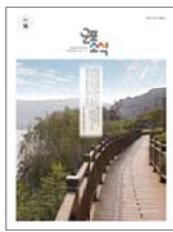
- ② 우측의 설문조사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이메일
duee2@korea.kr로 전송

상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 상당)

*30명 추첨

COVER STORY



군포를 대표하는 쉼터 군포 반월호수둘레길은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과 낭만을 선물하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가을에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하나를 더해보세요.